



동방경제포럼 소식

푸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태국가 지도자들이 동방경제포럼의 '극동: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면서'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바툴가 몽골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한민국 이낙연 총리가 전체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 (이즈베스티야)

이노소치움 전러 사회프로젝트 콘테스트가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시작된다. 이 콘테스트는 로스콘그레스 재단의 'LAB 비영리기구: 사회분야 투자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LAB 비영리기구 플랫폼에서는 극동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첨단 기술들도 선보일 계획이다. (타스통신)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로 건설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프리아 무르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 아무르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세울 계획이다. (타스통신)

극동지역과 쿠즈바스(케메로보주) 주지사들을 대상으로 기습 질의행사가 프리젠테이션 존에서 열린다. 지방정부 수반들이 지역의 주요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스탠드업 포맷으로 투자 사업 설명회도 열린다. (타스통신)

극동연방대학교는 이번 포럼에서 첨단기술 분야 청소년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포럼 참가자들은 대학생, 젊은 학자들, 스킨코보와 루스키 섬 테크노파크 입주 업체들의 첨단 개발품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극동의 거리 전시회에서는 관련 개발품들이 전시된다. («РЕФ.РФ»)

위대한 카를' 전시회는 동방경제포럼 문화 행사 프로그램의 화려한 장식이 될 것이다. 특별히 포럼에 앞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 화가 카를 브롤로프의 작품들을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온다. 이 전시회는 연해주 국립 아트 갤러리와 루스키 섬이 주관한다. (OTV-Prime)

극동 소식

연해주 나데즈딘스카야 선도개발구역 확대에 대한 정부 지침이 서명되었다. 7개 신규 부지가 선도개발구역 관할지로 포함된다. 9월 4일 메드베제프 총리가 관련 정부 지침에 서명했다. (이즈베스티야)

이리나 야로바야 하원 부의장은 극동 관광개발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원 부의장은 크루즈 선박을 위한 항해 노선을 개발하고, 몇 개 극동 행정지역 동시 방문이 가능한 관광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FederalPress)

블라디보스톡이 극동에서 가장 안락한 도시로 인정받았다. 이는 러시아 전체에 걸쳐 실시된 도시 환경 여건 인덱스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PrimeMedia)

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관계자들을 모을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공익사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 수있다.

www.roscongress.org